

TOGETHER HARIM

January

2026

Vol

236

표현주의 정서적 효과를 위하여 색채와 형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미술을 가리키는 미술사조



흰 소

이중섭 Lee Jung-seop

대한민국 화가

이중섭(1916~ 1956)은 표현주의적인 경향으로
소를 모티프로 한 작품을 주로 그렸던 한국 근대 서양화가입니다.

남겨진 대부분의 작품들이 41세로 생을 마감하기 전 6년 동안 제작되었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평탄치 않았던 생애로 인해 '비운의 화가'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02	기획포커스 표현주의 목차	17	겨울철 닭고기 보양식 레시피
04	회장님 신년사	18	전국 닭 요리 전주-청학동 들깨요리
06	사장님 신년사	20	직장생활 꿀팁.zip
08	병오년 새해소망 하림 말띠 직원들의 2026년	21	비즈니스 잉글리쉬
10	트렌드 리포트 이달의 트렌드는?	22	눈으로 보는 하림
12	하림 뉴스 2025년 12월	23	칭찬 릴레이 이달의 퀴즈

Date of Issue
2026년 1월 1일

Publish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하림그룹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일에 집중하며, 경영의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지켜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제 통상질서의 불안정은 공급망 리스크를 키우고 있으며,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긴장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과 AI가 촉발한 새로운 경쟁 구도와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가 시장을 더욱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자연의 근본 질서인 원리속에서 일하며,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 가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일일관리의 실행 습관, 즉 HBH(Harim Behavioral Habit)를 하림그룹의 핵심 기업문화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으며, 조직과 개인의 행동 방식 속에 점차 DNA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HBH를 보다 쉽고 빠르게 내재화하기 위해 우리는 ONE ERP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로 장착된 ONE ERP는 단순히 자원과 공정을 데이터화한 디지털 도구가 아니라, 하림그룹이 함께 일하고 사고하는 새로운 공통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 우리는 일하고, 토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며, 일일관리는 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실행될 것입니다. 일은 더 쉬워지고 경쟁력은 높아지며, 우리는 모두 함께 더 탁월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던 사소한 실수와 불합리, 부조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관리 부재로 인해 허망하게 소멸되던 성과들은 온전히 보전될 것입니다.

하림그룹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자연에서 식탁에 이르는 식품의 전 밸류체인을 연결하고 통합 운영하는 독보적인 사업 모델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식품사슬을 관통하는 절대적 가치는 “최고의 맛은 신선함에서 나온다”는 우리의 식품철학입니다.

이 식품철학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원리에 기반한 경영 그 자체입니다. 신선한 재료, 정직한 공정, 최고의 맛으로 고객이 신뢰하는 진짜 식품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회, 건강한 자연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하림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 신뢰의 축적이 곧 고객과 공감하는 신뢰 자본이며, ESG 경영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현장경영과 실사구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탁상공론은 배제되어야 하며, 현장과 실질이 존중 받아야 합니다.

디지털과 AI의 대전환이 업무 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ONE ERP를 기반으로 하림만의 독자적인 AI 모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ERP의 고도화나 AI 활용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는 치열한 현장과 실행의 기록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며, 그 데이터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개선을 이끄는 실행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가치를 갖습니다.

상징과 기호, 디지털이 만든 가상공간, AI가 생성한 결과물들이 이 세상과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AI는 가상 공간에서 데이터를 먹고 작동하지만, 우리의 고객은 현실 세계에서 실물과 함께 살아가며 진짜 식품을 먹고 살아갑니다. 무한복제와 비현실이 넘치는 시대일수록 고객은 더욱 '진짜'를 갈망합니다. 자연의 질서와 식품의 본질을 담은 우리의 식품철학을 고객에 공감시키며, '진짜'의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림그룹 임직원 여러분,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도덕적 의무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물론, 법과 제도, 도덕 준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탄소 저감과 자원 재활용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경쟁력이자 인류 공동체에 대한 책무입니다. 여기에도 우리의 역량과 자원을 과감히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행동 역시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국내외 모든 하림그룹 가족 여러분,

올해도 다층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에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로 무장한 고객의 요구는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선제적 준비, 즉각적 실행, 그리고 감성적 교감을 요구합니다.

ONE ERP와 HBH, 원리에 기반한 식품철학으로, 2026년을 반드시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대양을 누비는 해상 근무자 여러분,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하림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신 목표를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아침
하림그룹 회장 김 홍 국



푸른 희망을 품은 2026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고 하림의 성장을 위해 힘 써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림 임직원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해가 될 것입니다.

고환율, 고물가의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정세의 흐름은 원자재 수급과 비용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외부 요인들이 원가 상승 및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 트렌드는 더욱 섬세하고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건강함’, ‘지속 가능한 윤리적 소비’, ‘간편함 속의 미식 경험’ 등 다양한 가치를 요구하고 있고,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하림의 경영전략 Key-word는 “혁신을 통한 성장과 개선”**을 목표로 다음 세 가지 핵심 방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탄탄한 기본기, 흔들리지 않는 수익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생산 현장부터 사무실까지 안전과 5S, 현장 패트를 개선 등 기본기에 충실하고, 모든 과정에서 효율을 높여 전략적 인프라 구축에 앞장섭시다. 시스템 기반의 HBH는 이제 일관리 및 일마감을 실천하고, 현장 소통과 개선 활동은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변화하는 조직문화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는 AI와 자동화는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환경과 식품안전의 위험 요소는 사전 관리하여 혁신적인 업무 변화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해 나갑시다.



둘째, 고객의 니즈에 눈높이를 맞춰 트렌드를 이끄는 제품에 집중해야 합니다.

급증하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수요에 맞춰 고품질, 차별화된 HMR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과 웰빙 트렌드에 맞춰 하림만의 혁신적인 맛과 가치를 선보여야 합니다. 기존 육류 중심의 제품을 넘어 건강 지향형 신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하림존 및 2차점 매장진열 관리를 확대하여 소비자 접점을 늘려 고객지향형 서비스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품과 거래처의 ABCD 세그먼트 차별화를 통해 우상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 과정, 환경까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으로 고객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프리미엄 하림’의 품질과 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확고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 내재화를 해야 합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생산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우리 역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하며 RE100을 위한 친환경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동물복지 강화, 협력사와 상생, 지역사회 기여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속에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임직원, 농가, 협력업체, 거래처 및 바이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의 글로벌기업으로 동반성장 해나갑시다.

하림 가족 여러분,

올해 하림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중심이 되는 나이입니다. 새로운 One-ERP(SAP)의 도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CEO부터 임원 및 사원에 이르기까지 한 방향으로 시스템 경영이 실현될 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오픈이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모두 드러내고 빠르게 개선하여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다면 향후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생각의 틀을 깨는 혁신과 개선’으로 변화 해나갑시다.

사랑하는 하림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6년 말의 해인 만큼 힘차게 첫발을 내딛고 나갑시다.

임직원 및 협력업체 구성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일
(주)하림 대표이사 사장 정호석

임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김기찬 상무 바이오본부 사료사업부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본부 김기찬입니다.
 상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승진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벅찬 감격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사장님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땀 흘려준 동료.선후배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헌신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저는 26년 하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더욱 헌신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첫째,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조직의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
 하고 선제적 예방보전 활성화와 일일 관리를 통하여 강한 현장력을 실행하는 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5S 일
 상화와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
 려해 주신 만큼 성과로 보답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종설 이사 사육본부 사료사업부

안녕하십니까, 사료사업부장 김종설 이사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승진의 기회를 받게 되어 깊이 감사드리며, 그 무게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입사원으로 하림에 입사한 후,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하림의 물결 속에서 저 개인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을 돌아켜보면, 이처럼 귀한 직책을 제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함께 땀 흘려주신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
 니다. 항상 명확하게 사업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신 사장님과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사료사업부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하루하루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결
 과입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원가 경쟁력,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모든 부문에서 도전적인 목표(Stretched Goal)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
 으로도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현 이사 가공식품본부 기획관리부

존경하는 하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공식품본부 기획관리부장 이용현입니다.
 2026년 이사 승진이라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기간 동안 저를 이끌어 주
 시고, 함께 땀 흘려 오신 모든 동료, 선배, 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보로서 보냈던 시간들은 저에게 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
 다. 그 과정에서 배운 지혜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회사의 더 큰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습
 니다. 이번 승진은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저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자 더 큰 헌신을 요구하는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
 경 속에서, 저는 가공식품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실행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일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하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특히, 조직원
 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
 해, 늘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노력하며, 하림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종봉 이사(보) 생산본부 가공공장(익산)

1992년, 설레는 마음으로 하림 익산공장의 문을 들어선 지 벌써 3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풋풋했던 청년이 중책을 맡는 임원이 되니까
 지, 저에게 하림은 단순한 직장이 아닌 삶의 터전이자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가르침과 격려를
 주신 경영진과 선배님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묵묵히 곁에서 함께 땀 흘려온 익산공장과 모든 부서의 동료, 후배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하림의 성장을 이끌었고, 저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임원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34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
 전,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안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자세로, 하림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민 이사(보) 직할 재경실

안녕하세요 재경실장 김석민입니다. 임원 승진이라는 큰 영광이 주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임원 승진에 기쁘기도 하고 많이 두렵기도 합니
 다. 더 큰 책임이 양쪽 어깨에 내려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에게 자주 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
 니다. 새해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업무 측면에서도 더 큰 책임감과 목표를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림 가족 모두 2026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림 말띠 직원들의 2026!



정지섭 사원 생산1팀

안녕하세요. 생산 1팀 정지섭입니다.
2025년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배운 작은 경험들이 모여 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2026년 새해에는 하림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태욱 사원 생산1팀

안녕하세요 생산1팀 이태욱입니다.
힘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던 2025년이 벌써 끝이 났습니다. 지난해는 제 자신을 위해 맛집 탐방도 많이 하고, 카페도 다니며 힐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도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6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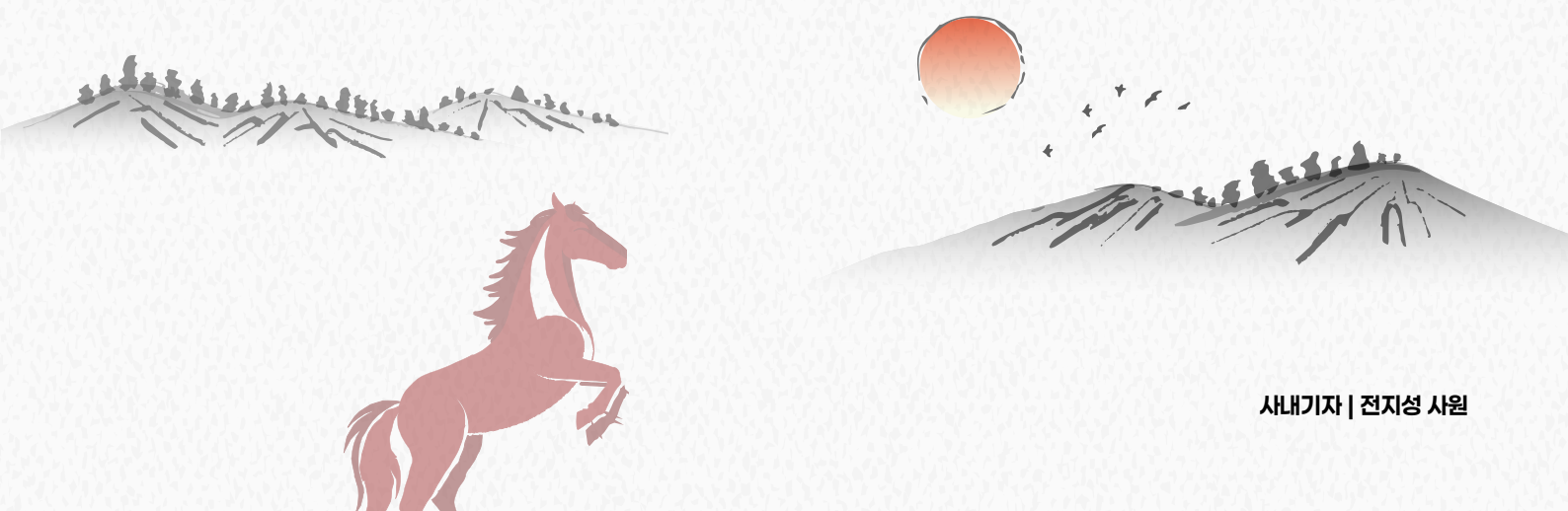
임재영 사원 재정팀

안녕하세요. 재정팀 임재영입니다.
2025년은 하림 재정팀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내실을 살피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쌓으며 묵묵히 소임을 다한 배움의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직에 깊이 녹아들며 동료들과 발맞춰 나가는 법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에는 성실하게 달리는 말처럼 꾸준한 자세로, 저와 우리 하림이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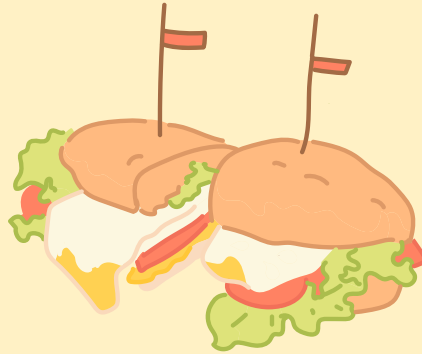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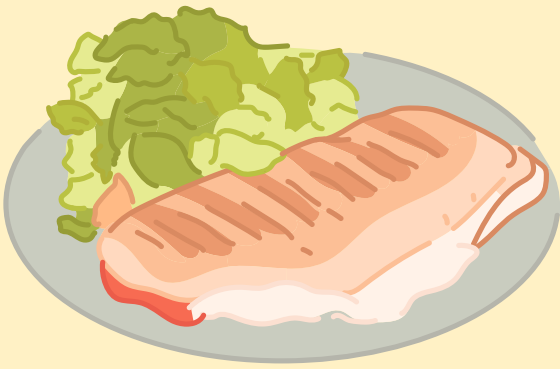
조찬영 사원 공무팀(익산)

안녕하세요. 공무팀 조찬영 사원입니다.
2025년 한 해는 설비 관리자로서 설비 예방보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낀 한 해였습니다. 저 또한 한 해 동안 예방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설비 고장률을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전 예방보전 활동을 통해 설비의 안정성과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더욱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드트렌드 2026

변화하는 소비행동 및 식품산업의 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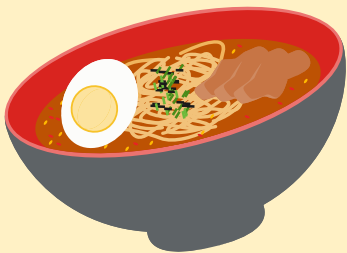


음식은 늘 시대를 비춘다. 2026년 식탁의 변화, 국내 식품시장은 어떤 걸 주목해야 하는지 변화의 방향을 들여다본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문정훈 교수가 과거 2년 대비 최근 1년 동안 변화된 식문화 트렌드, 최신 푸드 트렌드를 제시했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공유한다. 지난달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사상 최대인 8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1%로 5년 새 6%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우리 국민 중 804만 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이다. 1인 가구의 영향으로 일상 곳곳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게 변화할 것이다. 2026년 푸드 트렌드 중 가장 주목할 키워드는 ‘혼웰식’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식품 소비행동을 전망했을 때 ‘혼자 먹는 웰니스* 식문화’가 주목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혼밥 문화의 확산, 특히 코로나 19를 계기로 혼밥은 일시적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 혼밥의 성향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가족끼리 둘러 앉아 먹는 것 자체가 귀찮은 지경에 이르렀다. 급격한 혼밥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웰니스형 식문화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직전 2년간(2022년 6월~2024년 5월) 대비 최근 1년간(2024년 6월~2025년 5월) 소비자 취식 데이터를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일상식 메뉴는 덮밥류, 샌드위치, 샐러드, 햄버거 등이 증가했다. 혼밥 트렌드의 확산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돼지고기 섭취 감소가 통계상 처음 확인됐는데 특히 고기구이의 섭취가 감소하고 있다. 혼밥, 공유 식사를 꺼리는(가족과도 같이 먹지 않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혼밥 적합 간편식도 성장하고 있는데, 별다른 반찬 없이 숟가락 하나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원보울’ 형태의 식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동시에 파스타, 샐러드 같은 ‘원디쉬’, 샌드위치와 햄버거 중심의 ‘원핸드’ 푸드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식품 소비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을 때 ▲샐러드 ▲샌드위치 ▲치킨 ▲닭가슴살 ▲국밥 ▲육류 ▲일식면 ▲덮밥류 등 8개 메뉴가 고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카테고리리로 꼽힌다. 이 중 20대 남성의 닭가슴살 소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대남(이십대남성)은 원물형 닭가슴살, 이대녀(이십대여성)는 닭가슴살 가공품(큐브, 소시지, 바 등 형태)을 많이 섭취하고 있다. 닭가슴살 성장에 이어 닭 양념육 간편식(닭볶음탕, 닭갈비, 닭구이, 닭부산물 양념육)의 소비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다. 단백질 섭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계란, 계란가공식품 부분도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환경적 건강까지 고려해 동물복지란, 유정란의 구매(난각번호에 대한 인식 확대)가 늘고 있다. 계란 간편식 중 계란후라이는 여전히 집에서 해먹는 비중이 높고, 작은 시장이지만 스크램블, 오믈렛, 계란국 등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웰니스 푸드의 새로운 카테고리, 대체소재면 시장도 주목해볼 만하다. 탄수화물 기피 트렌드가 새로운 대체 식품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콩면, 두부면, 곤약면 등 저탄수·고단백 제품의 출시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어 동물성 소재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글로벌 동물성면은 어육, 계란, 새우, 닭고기, 소고기 등으로 제조한 면이 출시되고 있다. 국내 동물성면도 어묵, 닭가슴살면이 출시되며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단순한 가격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먹는 행위를 넘어 자기만족과 심리적 위로, 지속 가능한 실천이 결합될 때 비로소 트렌드가 된다. 실천 가능한 건강, 맛보다 감정과 경험을 소비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2026년의 식문화는 어떻게 진화하고 변화할지 그 다채로운 모습을 기대해본다.

* 웰니스 : 웰빙(Well-being)과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 잡힌 상태 및 이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

2025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선정 가금류 부문 농림수산물부 장관상(우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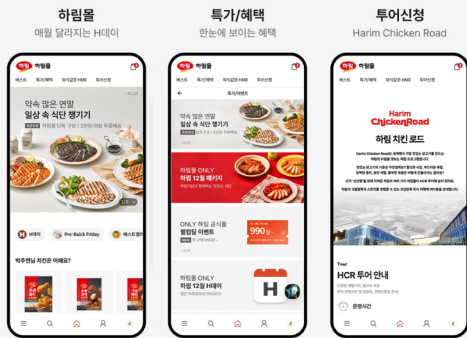


우리 회사가 지난달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5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시상식에서 가금류 부문 농림수산물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2017년 처음 시작되어 매년 진행돼 올해 9회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매년 HACCP 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평가해 운영 수준이 높은 도축장과 집유장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

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올해의 수상 기업과 지자체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닭고기 산업의 선도주자로서 지난 2012년 하림 정읍공장에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시스템을 도입했고, 2019년에는 익산공장에 2,60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최대의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 생산라인에 HACCP과 동물복지 시스템을 적용해 운용하고 있다. 또 국내 최초로 ‘축산물 품질인증’ 시대를 열고 포장육과 부분육, 양념육 시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오며 용가리치킨, 치킨너겟, 삼계탕 등 가장 신선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특히 무항생제·동물복지 브랜드인 ‘자연실록’과 안전과 신선함을 최고의 가치로 만든 브랜드인 ‘프레쉬업(Fresh-Up)’ 등 프리미엄 닭고기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과 신뢰를 받고 있다. 이재선 생산본부장은 “국내 우수도계장으로 선정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닭고기를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2 ‘스마트앱어워드 2025’에서 2년 연속 브랜드부문 통합대상 수상 하림몰 앱, 모바일 최적화 UI 디자인 등 호평



우리 회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하림몰’이 지난달 18일 열린 ‘스마트앱어워드 2025’ 시상식에서 브랜드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했다. 같은 날 ‘웹어워드 코리아’에서도 식품쇼핑몰분야 대상을 거머쥐며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모두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스마트앱어워드’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에서 주최하고, ‘아이어워즈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모바일앱 시상식이다. 매년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며, 올해도 국내 인터넷 전문가 4천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6개 부문(▲비주얼 디자인 ▲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을 토대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가장 혁신적인 모바일 앱을 선정했다.

‘하림몰’ 앱은 PC버전의 브랜드 감성과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모바일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개인화된 제품 추천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최소한의 터치로 주요 제품과 이벤트를 탐색할 수 있도록 분류를 체계화하여 편의성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림몰은 ‘웹어워드 코리아’에서도 식품쇼핑몰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웹사이트 자체도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웹어워드 코리아’는 디자인, 사용자 경험(UX), 기술, 콘텐츠 등 18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우수 웹사이트를 선정한다.

우리 회사는 2년 연속 대상 수상을 기념해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간 하림몰에서 인기 품목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온라인사업부 정충선 사업부장은 “최근 기업들이 자사물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하림몰은 소비자에게 알맞은 제품을 추천하는 큐레이션 기능 및 소비자 중심 디자인을 강화하며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구성 및 서비스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림몰’에서는 친환경 무항생제 닭고기 브랜드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고기부터 ‘용가리’, ‘맛닭가슴살’, 닭가슴살함 ‘참’ 등 하림의 다채로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3 (주)유니아이와 'AI 스마트팜 플랫폼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사양관리 전문성'과 유니아이의 'AI·로보틱스 기술' 융합



우리 회사가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주)유니아이(대표이사 백승환)와 협력하여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선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에 나선다. 지난달 15일 우리 회사는 본사에서 (주)유니아이와 '스마트팜 플랫폼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호석 대표이사과 조현성 사육사업본부장, (주)유니아이 백승환 대표이사과 (주)유니아이 해외 네트워크 자문을 맡고 있는 KAIST 김만기 교수 등 양사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미래형 양계 산업 구축을 위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주)하림이 축적된 사양관리 전문성과 (주)유니아이의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하여 고도화된 스마트팜 생태계를 구축하고, 농가 생산성 향상과 운영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사는 다음 두 가지 핵심 플랫폼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농장 운영 관리 플랫폼(농장 생산성 플랫폼)은 사양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농장 지원 운영 플랫폼은 농가 지원, 모니터링, 출장 관리 등 현장 운영 업무를 표준화하고 디지털화하여 시스템적인 관

리가 가능하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주)하림은 다년간 축적된 사양관리 노하우와 실제 농장 운영 데이터를 제공하며, 개발된 시스템의 시범 농장 테스트 및 검증을 전폭 지원한다. (주)유니아이는 AI·로보틱스 기반의 플랫폼 개발과 더불어 IoT(사물인터넷)·센서·자동화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지원을 전담한다.

단순 기술 제휴를 넘어선 사업적 협력도 구체화했다. 양사는 개발된 플랫폼을 국내 농장에 적용한 후, 공동 영업 및 컨설팅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검증된 'K-양계 스마트팜 모델'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 협약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K-양계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전략적 출발점"이라며 "하림의 현장 경험과 유니아이의 기술력을 결합해 'K-스마트 양계'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만들고, 향후 닭고기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 등 산업 자체를 수출하는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유니아이 백승환 대표이사는 "하림과의 협력은 유니아이에게 큰 책임이자 기회"라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이번 MOU가 한국 양계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함께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우리 회사와 (주)유니아이는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플랫폼 구조 설계 및 기능 정의에 착수하며, 실증 테스트를 거쳐 순차적으로 농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완성된 최적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외 스마트팜 컨설팅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사내기자 | 백의철 차장

4 컬리푸드페스타 2025에서 '하림 미식 어워즈' 진행 특별 제작 굿즈, 수수께끼 등 이벤트 인기



우리 회사가 '컬리푸드페스타 2025'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닭고기 제품들을 선보였다.

컬리푸드페스타 2025는 지난달 18~21일 '컬리가 제안하는 홀리데이 만찬'을 주제로 4일간 진행됐다.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연상되는 근사하게 꾸며진 공간에서 우리 회사를 비롯한 컬리의 108개 파트너사, 16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방문

객들에게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했다.

우리 회사는 올해도 컬리의 대표 축산 파트너사로서 한 해 동안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제품들을 총망라한 '하림 미식 어워즈' 콘셉트의 대규모 부스를 마련했다.

컬리 베스트 상품 '자연실록 IFF 큐브 닭가슴살'을 비롯해 냉장 닭가슴살 등 인기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화끈한 · 순진한 순살 닭갈비', '용가리치킨', '치킨너겟' 등 하림의 다양한 제품을 맛볼 수 있도록 마련된 시식 코너는 방문객들의 대기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큰 인기를 끌었다.

뿐만 아니라, 부스 곳곳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출구에서 정답을 맞으면 특별 제작 굿즈와 제품을 증정하는 '수수께끼 이벤트'를 진행했다.

응모함에 명함을 넣으면 추첨을 통해 '하림e닭 삼계탕 선물세트', '더미식 면세트' 등을 증정하는 '명함 이벤트'도 호응도가 높았다.

마케팅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컬리를 통해 하림 제품을 찾아 주신 많은 소비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색다른 이벤트로 보답하기 위해 올해도 '컬리푸드페스타'에서 부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내년에도 온 ·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하림 닭고기를 보다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게 다양면으로 찾아 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 익산 취약계층 위해 1억7000만원 상당 온정 전달 라면 3700상자(1억7000만원 상당) 기탁



우리 회사가 익산시에 지난달 29일 이웃의 든든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나눔을 전달했다. 우리 회사는 이날 익산시청을 찾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라면 3700상자(1억70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라면은 지역 내 복지 기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호석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나은정 복지국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이번 기탁이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익산시에 본사를 둔 종합식품기업으로 18년 동안 매년 연말마다 식품을 꾸준히 지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08년 시작한 ‘사랑의 쌀 나누기’를 비롯해 2022년부터는 저미 식 장인라면을 지원하며 나눔의 형태를 확대해 왔다. 이와 함께 어린이에게 도서와 식품을 지원하고, 다이로움 밥차에서 삼계탕을 제공하는 등 복지 현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6 7년째 이어진 성탄 온정... 결식 우려 아동에 ‘치킨박스 선물’ 전달 월드비전·익산교육지원청과 동행... 7년간 약 1억 9,800만 원 후원



우리 회사가 성탄절을 맞아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를 펼쳤다. 지난달 23일 우리 회사는 익산교육지원청, 월드비전과 함께 결식이 우려되는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침머고, 크리스마스 선물세트’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하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아침머고’ 조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아침머고’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아동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심리 정서적 안정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 첫발을 댄 이 사업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며 우리 회사의 상징적인 장기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우리 회사는 익산시 관내 익산초등학교, 이리초등학교, 동북초등학교 등 3개교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매일 조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용가리치킨, 치킨너겟 등 하림의 인기 제품들로 구성된 치킨박스를 제작해 직접 전달하며 온정을 더했다.

우리 회사는 올해 ‘아침머고’ 프로그램을 위해 총 2,7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조식 및 심리 정서 지원에 2,460만 원,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 제작에 300만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로써 우리 회사가 지난 7년간 이 사업을 통해 전달한 누적 후원금은 약 1억 9,800만 원에 달한다.

유영삼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하림 ESG 경영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월드비전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을 위한 선물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ESG 경영 실천에 앞장 서고 있다.

새내기자 | 백의철 차장

7 사육사업부, '닭발 품질 개선 TFT' Kick-off 품질과 수익, 두 마리 토끼 다 잡기 위해 노력



우리 회사 사육사업부는 겨울철 닭고기 품질의 핵심 지표인 '닭발'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16일, 사육사업부 및 생산·품질 관리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닭발 품질 개선 TFT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번 TFT는 오는 3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Kick-off 회의에서는 부서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행 목표와

전략방안을 공유하였다.

TFT 핵심 과제는 '닭 발바닥 피부염(FPD, Footpad Dermatitis)'의 근절이다. 닭 발바닥 피부염은 계사 내 깔짚이 습해지거나 환기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질병으로, 닭의 건강 상태와 사육 환경의 쾌적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동물복지 지표로 통한다. 실제로 서유럽 등에서는 발바닥 병변 무가 동물복지의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TFT는 ▲결로 관리 ▲급수 라인(니플) 관리 ▲환기 시스템 최적화 ▲사육 밀도 조절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통해 계사 내 깔짚 상태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산 관리 부서는 농장별 닭발 상태를 정밀 검수해 현장 정보를 공유하고, 품질 관리 부서는 철저한 최종 검수를 통해 소비자에게 깨끗한 닭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 오너인 이강현 사육사업부장은 "이번 TFT 활동은 닭발 원료육 품질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및 수익 창출 활동의 일환"이라며 "고품질 닭발 공급과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육사업부 전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내기자 | 강승현 사원

8 2025년 동아리 자랑대회 성료 10개 우수동아리에 포상과 격려



우리 회사가 지난달 30일 '2025년 동아리자랑대회'를 열고 현장 동아리 활동 성과 공유, 우수동아리 포상 등을 진행했다.

정호석 대표이사와 각 사업 본부장 등을 비롯한 동아리 리더, 동아리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70여 개 동아리 중 본선에 오른 10개 동아리의 현장중심 개선활동 우수사례 (Best Practices)를 발표했다.

이 자리는 동아리 활동 성과 공유 및 벤치마킹을 통해 생산성과 창의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동아리자랑대회에서 품질개선, 작업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 현장 개선 사례들이 발표됐다.

시상식은 성과 및 효과성, 창의성 및 혁신성, 문제해결 과정, 팀워크 및 협업, 발표력 및 자료활용 등을 기준으로 평가됐다.

시상식에서 ▲해돋이 동아리가 대상(상금 300만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고 ▲최우수상(상금 200만원)은 피닉스 동아리 ▲우수상(150만원)은 TOP, 루비, 연지 총 3팀 ▲장려상(상금 100만원)은 대나무, 달님, 다고칠게, 포장, 패밀리 총 5팀이 상금과 상장을 수상했다.

대상을 차지한 해돋이 동아리 방백과 사원생산2팀(정읍)은 "올해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동료들과의 끈끈한 팀워크 덕분에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며 "2026년에도 현장 중심의 혁신 활동이 이어가 회사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합의 장이 아니라, 우리 현장의 숨은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축제였다"며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동아리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우리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새내기자 | 김유리 대리

9

‘냄비요리 시리즈’ 소비자 소통 강화

캠핑 요리 최적화 HMR로 점점 확대



우리 회사는 최근 ‘냄비요리 시리즈’를 활용한 콘텐츠를 공개하며 디지털 채널을 통한 소비자 소통을 강화했다. 지난 11월 출시한 냄비요리 시리즈는 HMR 제품으로 우리 회사의 우수한 원물 경쟁력과 간편한 조리 방식을 결합한 게 특징이다. 별도의 재료 없이 원팩으로 완성하는 고품격 한 끼를 콘셉트로, 가정은 물론 캠핑장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번 소비자 소통은 캠핑 요리에 최적화된 제품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캠핑 전문 유튜버들과 손을 잡았다. 구독자 4.8만 명을 보유한 ‘시아캠핑’ 채널에서는 닭볶음탕과 곰도리탕이 소개됐으며, 구독자 8.4만 명의 ‘위세’ 채널에서는 찜닭, 곰도리탕, 닭볶음탕 콘텐

츠가 업로드됐다. 실제 캠핑 환경에서 간편하게 조리되는 과정과 풍부한 맛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제품 담당 마케터인 심희종 사원은 “냄비요리 시리즈는 조리 편의성과 완성도 높은 맛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캠핑·아웃도어 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제 활용 장면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콘텐츠 협업을 통해 하림 HMR 제품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내기자 | 남다빈 사원

10

정읍공장, 행복 나눔으로 훈훈한 연말

정읍시장애인복지관, 북면사무소 등에 임직원 마음 전달



우리 회사 정읍공장이 연말을 맞아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정읍공장 임직원들은 지난달 11일 정읍시장애인복지관, 18일 북면사무소를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 성금은 임직원들이 한 해 동안 모은 성금과 지난달 5일 지역사회 나눔을 위해 진행한 ‘사랑의 간식 나눔 행사’를 통해 모인 마음으로 마련됐다. 김은아 정읍시장애인복지관장은 “매년 연말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는 하림 덕에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임직원들의 소중한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귀하게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안전보건팀(정읍) 전영수 팀장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공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열린 ‘제25회 정읍시장애인복지관 송년한마당’ 행사에서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후원기업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새내기자 | 김해진 과장

<겨울철 닭고기 특별 보양식>

입맛, 면역력 떨어지는 겨울철 쉽고 맛있게 즐기는 닭고기 요리 3종
 담백한 찜닭부터 고소한 치즈 닭볶음탕, 시원한 짬뽕 삼계탕까지!

겨울철, 뜨끈한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즐기 좋은 닭고기 요리를 소개한다.
 맛은 기본, 둘러앉아 나눠 먹기 좋은 적당한 양에,
 보기에도 근사해 연말 모임이나 홈파티를 위한 요리로도 손색없다.

<이북식 찜닭>



‘이북식 찜닭’은 평양냉면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함이 매력적인 요리다. 일반적인 찜닭과 달리 너무 맵거나 달달한 양념을 사용하지 않아 ‘저속노화’ 레시피로도 꼽힌다. 레시피의 핵심인 ‘유장’은 토종닭 특유의 구수한 감칠맛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고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탄탄한 육질의 토종닭을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해 즐길 수 있게 선보인 하림의 ‘토종닭 닭볶음탕용’을 활용하면 쫄깃하면서 담백한 풍미가 살아있는 이북식 찜닭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치도리탕(치즈 닭볶음탕)>



‘치도리탕(치즈 닭볶음탕)’은 칼칼한 양념에 듬뿍 올라간 모차렐라 치즈의 고소한 풍미가 조화를 이루는 별미다. 먹기 좋게 토막 낸 국내산 닭고기와 특제 양념으로 구성된 하림 ‘매콤미늘소스가 들어있는 닭볶음탕용’을 활용하면, 추가 손질이나 맷내기 걱정 없이도 외식 부럽지 않은 닭볶음탕을 완성할 수 있다. 마늘의 알싸한 맛과 치즈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아이들 밥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안성맞춤이다.



<짬뽕 삼계탕>



‘짬뽕 삼계탕’은 닭고기와 전복, 낙지, 홍합 등 기호에 맞게 해산물까지 듬뿍 넣어 든든하게 몸보신하기 좋은 메뉴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건강하게 자란 닭고기를 사용해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하림 ‘자연실록 삼계탕용 통닭’과 시중에 판매 중인 짬뽕 라면수프를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푸짐한 한 끼를 맛볼 수 있다.



뜬개 삼계탕의 정석을 만나다

전주 '청학동 뜬개요리'

쌀쌀한 겨울이 깊어지는 요즘, 가족이나 어르신과 함께 보양식을 즐기고 싶다면 찾기 좋은 곳이 있다. 전주 중화산동 백제대로 큰 길가에 자리한 청학동 뜬개요리는 멀리서도 눈에 띄는 주황색 간판으로 현지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맛집이다. 오픈과 동시에 많은 손님이 찾는 이곳은 직접 닭 반찬과 세심한 서비스, 달콤한 후식까지 갖춰 완성도 높은 뜬개 한 상을 선보인다.



<정보>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231

전화번호: 063-226-9114

영업시간: 월-토 11:00~20:30

(휴무일 매달 2,4번째 일요일)

주차: 매장 앞 주차, 근처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및 서비스: 단체이용가능, 예약, 포장, 배달, 남/녀 화장실 구분, 무선인터넷

<주요 메뉴>

- 뜬개삼계탕
- 뜬개옹심이
- 뜬개소갈비전골
- 뜬개갈비옹심이
- 전통삼계탕
- 치자공기밥

맛과 보양을 동시에, 들깨삼계탕

뽀얗고 고소한 국물이 매력적인 들깨삼계탕. 들깨 요리하면 흔히 묵직하고 진득한 국물이 떠오르지만, 청학동의 들깨삼계탕은 일반 삼계탕처럼 맑고 담백하면서도 닭 육수의 깊은 맛과 들깨의 부드러운 고소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강한 들깨 맛을 기대했다면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깔끔한 맛 덕분에 목 넘김이 부드럽고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다.

담백한 보양식, 전통삼계탕

맑고 깔끔한 국물이 인상적인 전통삼계탕. 독배기에서 잘 익은 닭은 살이 부드럽게 발라지며, 속에 밥이 알차게 채워져 있어 한 그릇만으로도 든든하다. 요리 과정에서 동물성 기름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기름지지 않고 개운해 마지막 한 숟갈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 기본에 충실한 삼계탕을 찾는 이들에게 잘 어울린다.

들깨와 시래기의 참맛, 들깨소갈비전골

들깨 국물에 시래기를 듬뿍 넣어 끓인 소갈비 전골로, 쫄깃하고 탱글한 응심이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시래기국과 갈비탕의 맛이 오묘하게 어우러져 계속 끓일수록 국물의 맛이 깊어진다. 들깨의 담백한 맛과 얼큰한 국물이 어우러져, 담백파와 얼큰파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청학동만의 특별 메뉴다. 공기밥을 추가하면 예쁜 노란색의 치자밥이 나오는데, 밥을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에 말아먹으면 몸속부터 깊은 따뜻해지는 겨울 별미를 완성한다.



화려함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맛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청학동 들깨 요리. 삼계탕과 갈비탕, 응심이, 소갈비전골까지 닭고기와 소고기를 사용한 다양한 들깨 요리로 몸 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보양식이 필요할 때 즐기기에 좋다. 매장 방문이 어렵다면 밀키트를 통해 집에서도 청학동 들깨요리의 고소한 국물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든든한 한 끼가 필요하다면 들깨보양식으로 뜨끈하게 건강을 챙겨보자.



3줄로 정리한 '청학동 들깨요리'

- 현지인이 추천하는 30년 전통의 감백하고 고소한 들깨요리 전문점
- 삼계탕부터 갈비탕까지 부모님 모시고 가기 좋은 건강 보양식
- 직접 만든 정갈한 반찬과 친절한 서비스로 재방문을 부르는 깔끔한 맛과 분위기

바쁜 하루 속에서도 “이건 기억해두자” 싶은 직장인의 기본 매너!

#슬기로운 회사 생존 가이드

<인사와 태도는 모든 관계의 출발점>

- 먼저 인사하기
- 눈 마주치고 가볍게 미소 더하기
(사소해 보여도, 인사는 호감도 상승 포인트!)

<이메일 매너>

- 제목은 짧고 명확하게, 핵심 키워드를 포함해 메일 목적이 드러나도록
- 수신자·참조자 구분 정확히 하기
- 결론부터 간단히 전달하기
(메일만 봐도 ‘아, 이 사람 일한다’ 싶음)

<회의 매너>

- 회의 시간 엄수 하기
- 안건 사전 확인 후 참석하기
- 발언은 요점 위주로 간결하게
- 다른 사람의 발언을 존중하기
(말 많음 ≠ 기여도 높음, 공감 가지죠?)

<보고·요청 매너>

- 결론부터 전달하기
- 배경과 이유를 함께 설명하기
(결론 먼저 = 대화 속도 UP!)

비즈니스 매너는 거창한 스킬이 아닌
말투, 태도 같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오늘부터 작은 매너 하나만 실천해도
직장생활 체감 난이도, 확 내려갑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다! 새해 계획 및 MBO 논의



<새해 계획 및 MBO 논의 기본 샘플>

Jane : Good morning, everyone. (A) I'd like to discuss our MBO for the new year.

Tom : Sounds good. Do you already have some goals in mind, Jane?

Jane : Yes, I reviewed last year's performance. (B) I think we should focus on improving client satisfaction.

Maria : That makes sense. Maybe we can set a measurable target for that.

Jane : I agree. (C) How about aiming for a 10% increase in positive client feedback compared to last year?

Mark : That's ambitious, but doable.

Jane : Also, I want to improve our internal communication flow this year.

Tom : Great point. We had some delays last year because of unclear updates.

Jane : Exactly. (D) Let's try sending weekly project summaries.

Maria : (E) I think that will help everyone stay aligned.

Jane : Perfect. (F) If we stick to these goals, we can make this year even more productive.

Everyone : Sounds great. Let's do it!

제인 : 좋은 아침이에요. 새해 저희 팀의 MBO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요.

톰 : 좋아요. 혹시 생각해두신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인 : 네, 작년 성과를 검토해봤어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마리아 : 합리적이네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봐도 좋겠네요.

제인 : 동의합니다. 긍정적인 고객 피드백을 작년 대비 10% 상향 목표로 잡는 건 어떨까요?

마크 : 목표가 크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인 : 그리고 올해는 내부 커뮤니케이션도 흐름도 개선하고 싶어요.

톰 : 맞아요. 작년에는 명확하지 않은 업데이트로 인해 업무 지연이 좀 있었죠.

제인 : 맞아요. 주간 프로젝트 요약을 보내는 것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리아 : 그렇게 하면 모두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인 : 좋아요. 이 목표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올해를 훨씬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키면 올해 훨씬 더 생산적일 거예요.

모두 : 좋아요. 그렇게 해봐요!



<새해 계획 및 MBO 논의 기본 패턴>

(A) 회의 시작 및 목적 제시

• I'd like to discuss [주제].

ex. I'd like to discuss our MBO for the new year.

새해 저희 팀의 MBO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ex. I'd like to discuss the upcoming client presentation.

곧 있을 고객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B), (C), (D) 의견 제시 및 제안

• I think we should focus on [개선점/방향].

ex. I think we should focus on improving

client satisfaction.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ex. I think we should focus on expanding

our market reach.

시장 점유율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How about aiming for [목표/수치]?

ex. How about aiming for a 15% growth in sales next quarter?

다음 분기에 매출 15% 성장을 목표로 삼는 건 어떨까요?

Let's try [행동/방안].

ex. Let's try implementing a new CRM system.

새로운 CRM 시스템 도입을 시도해봅시다.

(E), (F) 결과 및 다짐

• I think that will help [목적/결과].

ex. I think that will help us improve our efficiency.

그것이 우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If we stick to these goals, we can [긍정적인 결과].

ex. If we stick to this plan, we can achieve our

quarterly targets.

이 계획을 잘 지킨다면, 분기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사업본부별 워크숍



눈으로 보는 하림

2025년 12월의 주요행사 모습입니다.
지난 추억들을 살펴보세요



지난달 1일 헬스 인플루언서들이 우리 회사의 신선한 닭고기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장성기 익산세무서장이 지난달 10일 우리 회사를 찾았다.



지난달 17일 가공 1,2공장에서 CEO 현장패트롤이 진행됐다.



지난달 16일 타이슨푸드 코리아가 우리 회사를 방문해 현장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23일 사회공헌 우수부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 여직원 모임인 하미즈가 지난달 23일 연말 나눔 캠페인을 가졌다.



지난달 24일 신우회 천사합창단이 성탄절을 맞아 축하송을 선보였다.



우리 회사는 지난달 26일 송년 뽀끼 이벤트를 마련해 임직원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물했다.



우리 회사 프레시마켓은 지난달 29일 크리스마스 맞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29일 HKR, HCR을 둘러보며 하림의 맛과 비밀을 확인했다.



HCR 견학객

HCR투어 신청은 하림푸드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12월에는 타이슨푸드 코리아, 충남농업기술원, 한국임업인협회, 풀무원, 익산세무서, 한국교통대, 육군부사관학교, 논산훈련소, 기자단, 오드그로서 등 3,200여 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칭찬 릴레이



정진 사원 홍보팀 → 박진용 차장 설비구매팀

견학을 진행하다 보면 박진용 차장님을 마주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마다 차장님은 항상 밝은 미소로 견학객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 주시며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견학을 오신 분들에게는 '아, 이 회사 정말 분위기 좋다!'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저 역시 진행자로서 큰 힘이 됩니다. 바쁜신 와중에도 주변을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미희 팀장 홍보팀 → 이운성 팀장 영업기획팀

이운성 팀장님은 매일 새벽 출근은 물론 주말에도 출근하며 많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바쁜 와중에도 필요한 부분을 먼저 챙겨 주시고, 늘 웃는 얼굴로 주변을 맞이해 주셔서 항상 밝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아침 수급회의처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업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며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하루의 본보기가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에 진심으로 이운성 팀장님을 칭찬합니다.



하유정 대리 홍보팀 → 임성진 사원 공무팀(익산)

신입사원 교육 때부터 리더십 있게 동료들을 챙기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항상 주변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돋보이며, 공무팀의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해 믿음을 주는 동료입니다. 밝은 인사로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 주는 점도 늘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해박하고 배울 점이 많아서 이런 든든한 동료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가고 싶은 훌륭한 동료 임성진 사원을 칭찬합니다.



새내기자 | 정진 사원



이달의 Quiz

'적토마'는 어떤 말을 의미할까요?

- ① 검은 말 ② 붉은 말
- ③ 날개 달린 말 ④ 작은 말

정답 제출 방법

답장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하림 선물세트'를 드립니다.

참여 시, 번호와 선택한 이유,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함께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E10202932@harim.com

235호 퀴즈 당첨자

고*희 천안시 서북구
이*래 서울시 관악구
이*철 천안시 동남구

닭이 된 나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디지털닭! 제조업 종사자, 특히 관리자들은 공감할 거예요. 밤새 이슈가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확인해요"

"모닝닭! 다시 태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모닝닭이 되고 싶어요. 이번 생은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카페닭! 대학원에서 동물영양학 및 행동복지학을 전공하며 주로 닭을 연구했습니다. 내가 닭이라면 어떤 사료를 좋아할까?

내가 닭이라면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았습니다. 당시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상한 생각을 하나 싶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운명처럼 하림펫푸드에 입사해 있네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셔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 모습이 마치 2년 전 제가 키우던 닭들이 아침마다 사료를 애타게 기다리던 모습과 겹쳐 보여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의 닭을 만큼이나 저에게도 커피는 생존이자 행복이거든요. 앞으로 모닝닭이 될지, 디지털닭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모습이든 하림 안에서 즐겁게 연구하는 닭(?)..아니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카페닭! 카페인인 하루를 살게 해요! 그 중에서도 감성 카페는 최고닭!"

장*은 서울시 중랑구

2026년 병오년 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은 말의 해를 맞아 더 높이 비상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Happy New year~!

(주) 하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063-860-2422 www.harim.com